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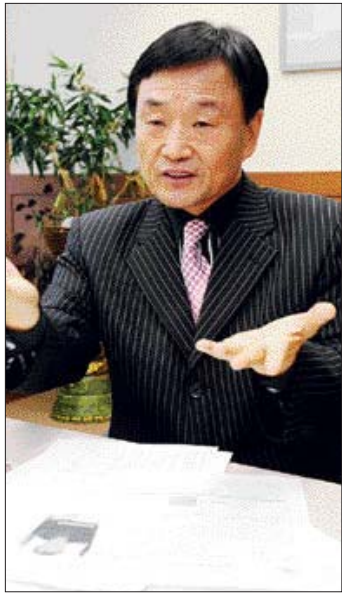
사회

2009 아름다운 동행, 그 이후 ③ 불우형제 代父 김희환 前 농성1동장

“자립심 강한 대학생으로 성장 대견”

지난 3월 초 김정식(가명·18)군은 자신의 바람대로 중앙대학교에 입학했다. 김군은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 입학 허가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복역 중인 친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을 보살펴준 광주시 서구 농성1동 김희환(60) 전 동장과 후원자의 도움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광주일보 보도(2월 6일·9일자 6면·7면) 이후 김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후원자들이 적극 나서 도움을 준 덕분이다. 1학년 2학기 종강을 며칠 앞둔 19일, 김군은 요즘 아르바이트를 구하느라



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이다. 하지만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청소년 지원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서구 화정동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김군의 동생(17·광주 모 고교 2년)을 찾아가 낯은 일을 대신 해주는 등 아버지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김 전 동장은 “최근 김군과 통화했는데, 광주에 있을 때와 달리 성격이 밝아지고 자립심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최근 ‘어머니 뵈러 교도소에 면회 다녀왔다’는 김군의 얘기를 듣고 무척 대견스러웠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 후 김군과 어머니 안성심(가명·48)씨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모자(母子)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안씨는 지난 2004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김 전 동장은 “과거에는 김군이 면회가는 것을 꺼려 했는데, 지금은 홀로 찾아갈 정도로 많이 변했다”며 “어머니는 2년 뒤 만기 출소가 되는데, 모범수로 인정돼 예정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 김군을 잘 보살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중앙대 입학 취소 위기 김정식군 후원

“고마움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정신이 없다. 2학년 1학기 등록금 450만원 중 장학금 120만원을 뺀 나머지 330만원을 직접 벌기 위해서다.

등록금 외에 기본적으로 학업 유지에 필요한 기숙사비 13만원과 생활비 7만원 등 한 달 평균 20만원 가량의 생활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벌레’로 통하는 김군은 학기 내내 상위권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학기 중 강의실과 기숙사만 오갈 정도로 외출은 가능한 삼간 덕분이다.

김군의 꿈은 경제학 교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군은 김 전 동장과 후원자들이 건넨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김군의 친아버지 노릇한 자처한 김 전 동장의 지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월 30일 동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동

장은 “과거에는 김군이 면회가는 것을 꺼려 했는데, 지금은 홀로 찾아갈 정도로 많이 변했다”며 “어머니는 2년 뒤 만기 출소가 되는데, 모범수로 인정돼 예정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 김군을 잘 보살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경영혁신 눈에 띄네

사회공헌 등 실적 우수... 행안부 고객만족도 평가 도시개발부문 1위

광주시도시공사(사장 김영진, 이하 도시공사)가 올해 경영효율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등 각종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자본금을 기존 1천542억원에서 1천625억원으로 늘려 재원조달 역량을 확장함에 따라 내년 대형 시책사업이나 자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사무골프장, 영주골프장, 실내수영장, 실내빙상장,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운영팀을 수입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을 반환하고, 수영강사나 안내 직원 등을 아소소싱하는 등 원가절감에 나서 올해 수입 목표액 63억2천636만4천원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해 고비용 인력을 내보내고, 예산절감과 경제살리기 동참 차원의 급여 반납 등의 방법으로 신규사원 6명, 계약직 직원 7명, 인턴사원 11명 등 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 1천542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해 당초 목표 1천504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도시공사가 지역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이 충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도시공사는 또 사회공헌을 제도화해 지난 해 말 직원들이 참여한 ‘나눔미봉사단’에 소속된 87명의 직원을 경영지부와 건설지부로 나

뉘 분기별 1회 이상의 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도록 했으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및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사는 2009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도시개발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영진 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도시공사의 실적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평가 결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임직원 모두 지역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근무한 결과로, 앞으로 더 좋은 성과와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케이블카 논란’ 등 10대 환경 뉴스 선정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등 올해 광주·전남을 뜨겁게 달군 환경뉴스 10개가 발표됐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논란이 된 10개의 환경 관련 사건과 의제를 ‘10대 환경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 강행과 반발 ▲지리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포스코 동호안 해안도로 붕괴 ▲무

등산 관광개발 조례 제정 등이다.

또 ▲남해안 규제 완화로 인한 훼손 우려 ▲광주전, 집중호우로 피해 ▲목포 해양음악분수 설치 갈등 ▲중암공원 내 유스호텔 개발 ▲그린벨트 해제, 돌구장 건립 구상 ▲기후변화 대응 대책 등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환경뉴스 대부분이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민감한 문제”라며 “10대 환경뉴스는 내년에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공원 아이디어 공모 11개 작품 선정

광주시는 22일 전면적인 정비를 앞두고 있는 광주공원에 대한 시민·전문가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Sky Walk Park’ 등 11개 작품을 선정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광주 제1호 공원으로 광주공원의 전면 재정비를 앞두고, 일반인과 전문가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공원 정비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았으며, 이날 19개 제안서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수작 등을 최종 결정했다.

전문가 부문에는 ▲이원미(27·서울 동작구)씨의 ‘Sky Walk Park’ ▲전성철(23·전라남도 보성군)씨 등 9

명의 ‘진짜 초록을 말해요’ ▲정영진(26·서울시 관악구)씨 등 3명의 ‘공원의 기억’이 공동 우수작에 선정돼 각 5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또 일반 시민 공모부문에는 ▲윤수현(26·경기도 용인시)씨의 ‘빛고를 광주를 대표하는 녹색공원 조성’ ▲문창용(28·광주 서구)씨의 ‘A three-generation’이 우수작에 선정돼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상한다.

시는 이들 수상작들을 현재 추진중인 광주공원조성계획 수립 영역에서 구체적인 공원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아이디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8분 해질 17시 25분 달돋이 11시 25분 달질 23시 36분

낮부터 평년기온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겠다.

광주	흐린 뒤 맑음	2/11C
목포	흐린 뒤 맑음	5/11C
여수	흐린 뒤 맑음	5/11C
완도	흐린 뒤 맑음	4/11C
구례	흐린 뒤 맑음	-1/10C
애남	흐린 뒤 맑음	2/11C
장흥	흐린 뒤 맑음	1/11C
고흥	흐린 뒤 맑음	2/12C
순천	흐린 뒤 맑음	0/11C
영광	흐린 뒤 맑음	3/11C
진도	흐린 뒤 맑음	4/11C
전주	비 또는 눈	3/10C
남원	흐린 뒤 맑음	-2/9C
옥산도	흐린 뒤 맑음	6/10C

〈오전〉 바다

방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1.5m	관심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관심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관심	↓	↓

〈오후〉 바다

방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목포 05:46	11:03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18:15	23:44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여수 00:38	06:2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12:53	19:24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11	4/7	-1/3	-2/4	-3/2	-3/2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대학의 학부 ☎605-1114 / 대학원 ☎605-1115

NAVER

광주 최초 도심형 타운하우스 첨단 비버리힐즈

2단지 20필지 분양개시

● 필지 최소 분할 면적은 150평 이상(분할 160평)

Sample House

파/격/분/양

1. 분양금 3억 5천만원 20%할인 혜택

2. 전·금·기존 거주 이피를 대체할 수 있음

● 생활동·보통분포·서민형·배려형이 혼용

시행사 그린비(주) | 시공사 SK건설(주) | 분양/문의/의 062)375-7000 | 계약/시공/의 062)974-5555



“불우이웃 위해 써주세요” 광주지역 어린이집 원생들이 22일 북구 용봉동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손수 모은 저금통을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